학생과 시민 創意性 나래 활짝

포천문화원 제19회 반월문화제 3천여명 참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하며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한 제19회 반월문화제가 22일 포천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대회에는 지역출신인 고조흥 국회의원 및 황용선 부시장, 변진수 교육장을 비롯 각급 학교장, 문화예술계 관계자를 비롯 3천여명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구축 및 창작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화합 계기마련, 학생들의 창작예술 표현을 통한 자질향상 등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대회장인 이만구 원장은 반월문화제는 회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훌륭한 작품 창작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사물놀이, 대금연주, 우리춤 체조의 공연에 이어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부분별로 나눠서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참여자를 위한 도자기 공예, 페이스페인팅, 좋은 글 써주기, 전통목각판 시연 및 서각체험, 종이공예 등 다양한 참여 및 체험마당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접수된 작품은 사계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 별도의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며 수상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하며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한 제19회 반월문화제가 22일 포천종합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현대미술제 '파워 아티스트展'

6월18일부터 24일까지 95명 작가 작품 전시

진산미술관(관장 이경진)은 오는 6월18일부터 24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관에서 포천현대미술제『파워 아티스트展』을 개최한다.

진산미술관(관장 이경진)은 오는 6월18일부터 24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관에서 포천현대미술제『파워 아티스트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95명의 중견작가와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이 평면과 입체로 나누어 최근 작품 위주로 전시하는 대규모 기획전으로 포천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 진산미술관 관장은 "국내 화단에서 독특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기작가분들이 초대되어 펼치는 이번 전시는 문화중심도시-포천을 지향하는 포천에서 개최되는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역주민과 학생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초대작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영모▶김덕기▶김선두▶김선형▶김일해▶김정욱▶민정기▶박병춘▶박뿔똥▶박순철▶박영률▶박종갑▶성창경▶신하순▶이동재▶이재삼▶임종두▶임효▶임근우▶임만혁▶유근택▶장승택▶정승주▶정현숙▶지요상▶한가창▶한젬마▶황주리▶구본주▶김상균▶김찬식▶박장근▶배효남▶성동훈▶유재흥▶이민수▶이일호▶조성묵▶최태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문화재단 문학 작가 해외 파견 지원

25일부터 6월22일까지 접수

경기문화재단은 중앙 아시아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카작스탄 국립 크즐오르다 대학교 한국어과에 파견할 경기도 내 문학작가를 모집 중이다.

올해로 5년째 중앙아시아와 문화교류를 해오고 있는 재단은 카작스탄 고려인 연합회, 홍범도 재단, 계봉우 재단 및 대학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경기도 알리기와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이에 대한 성과로 국립 크즐오르다 대학에서 어문학 등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학작가 파견을 요청해왔다.

파견대상은 석사 학위이상의 경기도 내 문학작가이고, 파견기간은 8월 29일(월)부터 3개월간이며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05년 5월 27일(금)부터 6월 22일(수)까지이며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를 참고하여 문화사업팀(231-7222)으로 방문·우편접수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포천은 역사이래 많은 문인들과 스승을 배출한 고장이다. 儒林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포천시에는 포천한시사가 있다. 포천한시사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에 한학의 대가인 유봉현 전 포천향교 전교로부터 한시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주옥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지는 포천한시사 회원들의 작품을 연재하여 포천의 살아 숨쉬는 전통을 기록해 나가고자 한다.(편집자주)

餞送暮春情景

저물어 가는 봄을 보내면서

晝長夜短暮春中 낮은 길고 밤은 짧아 봄은 저무는데
霧捲池塘水接空 안개 걷힌 연못은 물과 하늘이 닿았네
含露蘭花陰地活 이슬 머금은 난초는 음지에서 자라고
飄風柳絮散天通 바람에 날리는 버들꽃 높이 올라 흩어지네
氣晴和暢祥雲洞 날씨 화창하니 상서로운 구름이 드리우고
霞彩玲瓏皓月宮 노을 빛 영롱하니 밝은 달 비치네
新綠方濃時節好 녹음이 짙어가는 좋은 계절인데
韶光九十景觀隆 삼춘가절이라 경관이 더욱 좋구나
中空通宮隆(압운)

錦岩 楊 載 昌

(抱川鄕校 典校)

자/유/기/고

김 영 복

이해조문학회 회원

포천신문 편집국장

신소설 '牧丹屛' 읽기

이 글은 이해조문학회 5월 정기모임에서 발표된 신소설 '모란병' 작품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신소설 이해에 폭을 넓히기 위해 이해조문학회의 요청에 의해 편집한다. (편집자주)

신소설 모란병은 1911년4월5일 박문서관에서 발행하여 당시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짧은 기간에 4판을 거듭해서 발행한 베스트셀러다. 작품명 '모란병(牧丹屛)'은 모란꽃을 그린 병풍으로 경사스러운 때에 주로 쳤으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모란병이 객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팔려와 주인공과 만나고 결국 주인공 결혼식때 병풍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작품명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모란병은 금선이라는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황수복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신학문을 배워온다는 내용이다. 선혜청의 창고지기 현고직은 정부의 제도개혁으로 선혜청이 혁파되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진다. 현고직은 변선달의 말을 믿고 외동딸 금선을 시집보내려고 하지만, 변선달은 금선을 술집에 팔아넘긴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금선은 몇 차례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순검(巡檢) 송씨에 의해 황수복의 어머니 장씨에게 맡겨진다. 금선은 장씨 부인의 도움으로 여학교에 다녀 신학문을 배우고 수복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게 한다.

봉건사회에 대한 고발과 여권(女權)존중, 신학문의 성취 등 개화에 대한 의지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1910년 국권피탈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작가의 창조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란병은 갑오경장(1894년)으로 인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봉건 체제가 붕괴되자 양반계급에 기생하던 중인 계층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중인 계층의 몰락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그로 인하여 희생되는 여성, 금선이 그것을 극복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내용이다.

모란병은 작품의 구조상 네 번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와 남의 조력을 통하여 극복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의 전개가 평이하고 주인공인 금선이 그 과정을 통하여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설에서 중인 계층의 몰락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했던 가족사의 비극적 운명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결말로 마무리됨으로써 주제 의식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원인을 전대의 서사 양식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성, 즉 세계관의 한계성에도 기인한다.

이해조의 소설관은 전시대의 소설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성과 흥미성, 그리고 계몽성의 문제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다. 즉 이해조의 소설에서 보여지는 것은 계몽성의 지나친 강조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간의 대결이 심화되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작가의 선험적인 판단이 우연과 피동 그리고 지나친 이상주의로 나타난다. 계몽성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실감나게 그려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 사회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 모순을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성이 지나치게 작가의 주관에 의해 재단되어 사회의 세부와 시대적 모습이 왜곡되어 나타나면 오히려 독자들은 인물들이 행동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감소 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작가의 의식이 작품 속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기에는 아직도 전대소설의 영향권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신소설 작가들의 문학관이 문학을 계몽주의의 실현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그릇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해조의 소설을 시기별로 보면 1910년 국권피탈이전의 소설에서 보이고 있던 진보적인 사상들이 1910년 이후에는 별반 나타나지 않고 흥미성 위주의 소설로 일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원인에는 일제의 탄압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절망적인 분위기에 의해 독자들이 비현실적인 세계에 대하여 탐닉하거나 상당수 신소설이 지니고 있던 통속적인 현실 조작에 빠져 들었다. 소설은 이 시기 독자들에게 현실을 탐구하고 인생을 묘파하는 예술적 인식 장치가 아닌 시대의 피로함을 잊기 위한 위안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조의 모란병은 일본이 아닌 제3국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통해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돌아와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도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란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보면, 모란병의 여주인공 금선은 아버지의 무지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기생으로 팔려가지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기존의 도덕관에 얽매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운명 개척을 타인의 힘에 의존하는 소극적이고 평범한 인물로 언제나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전통적인 도덕관을 내세우고 있고 남자 주인공 황수복은 무슨일이든 진상을 밝히고 야마는 성격의 소유자로 우연히 금선의 처지를 알고 금선이가 팔려간 인천까지 금선을 찾아갔다가 실패하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이처럼 두 주인공이 사건의 발전 속에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이해조가 그리고 있는 긍정적 인물들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작가의 이상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이상적 인간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물 현고직은 그 당시 몰락하는 중인 계층들의 실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구조를 읽을 수 있고, 악한형 인물인 변선달은 무식하지만 거짓말을 잘하고 잡기에 능하며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인물이고, 황수득은 남자 주인공 황수복의 사촌형으로 자신을 키워준 백모를 속여 가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학간 수복이 객사하였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수복을 찾는다는 구실로 재산을 가로채는 인물이며, 변선달을 비롯한 최별감, 노창문, 황수득, 인천 감리 등은 당시의 무너져 가는 유교적 가치관에 대치되는 타락한 인간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인물의 사실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정적 인물군들이 그 당시 사회를 더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즉 전형적 환경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전형성은 긍정적 인물군이 아닌 부정적 인물군에서 구현되고 있다.

모란병은 소설의 요소 중 사실성보다는 흥미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독자들은 추상적인 세계로 구현된 작가의 이상적 세계보다는 구체화된 고난의 주인공의 운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후 이해조의 소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소설들이 통속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계몽성보다는 계몽성으로 위장된 흥미성이 소설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모란병은 흥미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소설의 대표적 작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문화시민의식과 환경변화 대응력 함양"

포천문화원 이시형박사 초청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특강 마련

포천문화원은 지난 19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문화원 임·회원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시형 박사 초청 문화특강을 실시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금년도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문화원 임·회원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시형 박사 초청 문화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포천시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비중을 두고 반월아트홀 개관을 비롯 문화학교 개설운영, 각급학교와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등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문화특강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한편 바쁜 일정속에서 포천을 방문해 준 이시형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시형박사는 "다양한 시각으로" 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점과 우뇌형 인간과 좌뇌형 인간의 논리 등 다양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시민의식과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자질함양을 위한 열정적인 강의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

한편 포천문화원은 이번 문화특강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선진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2)

왕방산인(王訪山人) 홍춘수(洪春壽)

포천 사람은 많다.

역사적 인물로 청사(靑史)에 길이 빛나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

포천출생, 포천 생거(生居), 포천에서 벼슬한 사람, 포천에 묘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분되는데 포천에서 출생하여 평생을 살았으며 또 포천에서 벼슬을 하고 묘가 있는 분들은 매우 드물다.

여기 포천에서 태어나 일생동안 벼슬을 멀리하고 은사(隱士)로 일관한 분을 소개하여 알리고자 한다.

조선시대 학자였으며 향리(鄕里)의 교육자였던 홍춘수님은 선단리에서 은거하였다.

왕방산 기슭인 선단리에서 산 홍춘수님은 호 까지도 '왕방산인(王訪山人)'이라고 지었다. 학문이 넓고 깊었으나 님은 이인(異人) 소리를 들을만치 벼슬을 철저히 사양하고 살았다.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 인재를 골라 교육함으로써 문하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당시 시문(詩文), 의학(醫學), 글씨(書藝)에 이름높던 정착과 교유(交遊)하면서 학문을 토론했고 일생을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만 전념하였다.

당대의 성리학자이며 청백리로 명성이 높던 조경(趙絅) 선생이 포천읍지를 편찬하고자 할 때, 관계인사들이 모두 "홍춘수님 만은 당연히 인물록(人物錄)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홍춘수님이 얼마나 포천지역 학문발전과 교육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토록 평생을 왕방산 기슭에서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쓰던 유지(遺址)가 선단리에 남아 있어 님을 기억하게 한다.

요즈음 학문을 하고 대학에서 보직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마치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듯 착각을 하여 교만을 떨고 재야에서 묵묵히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헌신한 숨은 은사들을 내려다보는 경우를 흔히 볼 때, 옛날 홍춘수님 같은 훌륭한 은사(隱士)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근래에도 수십 년간 한학을 연구하고 서당을 개설하고 포천의 유림들을 모아 시회를 즐겼던 어룡리의 송운서당 오영우(松雲書堂 吳永祐)님이나 미강서당 이진호(嵋崗書堂 李眞鎬)님도 홍춘수님 같은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진다.

또 유림들을 중심으로 한시사(漢詩社)를 만들어 한시를 공부하고 옛 선비들의 선비정신과 아름다운 한시의 향기를 맛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존경과 또 존경의 마음이 앞선다.

매년 한시백일장을 열어 전국의 한학자들을 명현의 고장 내고향 포천으로 모이게 하는 바는 명현의 고장답고 홍춘수님 같은 분이 사시던 고장다운 면모라 생각되어 고개가 절로 숙여짐을 금할 길 없다.

역사의 기록이나 정확한 인물지에 홍춘수님의 생·몰년이 기록되지 않았음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연락처 02-932-2434